

'연극도서' 출판의 현단계와 전망

영화에 비해 상대적 열세 ... 시장성 확보가 관건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의욕적인 출판을 보인 문화부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를 '연극영화의 해'로 제정했다. 정부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명시화한 이번 조치가 관계자들에게는 '의욕'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출판계 쪽에서는 이러한 자극의 파장이 과연 관련 출판물의 활성화에 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극 관련서는 비교적 꾸준히 출판

최근 들어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화계가 나름의 입지를 마련해가고 있음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연극계의 실상은 출판물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그동안 출간된 연극관련 도서는 크게 연극사를 비롯한 이론서, 평론집과 희곡집, 그리고 공연대본과 잡지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도서들은 그 다양성이나 질적 수준은 접어두고라도 우선 그 양에 있어 다른 장르에 비해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극 80년사'라 불리는 국내 연극사는 그동안 몇몇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정리돼 왔는데 그동안 축적된 자료의 부실로 특히 초창기 연극계의 실상을 복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연극사」 「우리시대 연극 운동사」 등이 대표적 연극사로 장한기(동국대), 유민영(단국대) 교수가 이 방면에 관심을 갖고 노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유교수는 「한국현대희곡사」 「한국극장사」를 통해 한국연극사에 접근

현재 연극관련 도서를 찾는 독자들은, 굳이 공연장의 관객수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實演을 전제로 하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이론'이나 '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전공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하는 색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최근 출간된 원로배우 고설봉씨의 「증언 연극사」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일제하 연극계의 실상을 생생히 전해줌으로써 자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연극관련 이론서는 이른바 '총체예술'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문학·음악·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나와있는 이론서들은 연극미학이나 부조리연극·전위연극 등 현대연극사조에 대한 입문서, 그리고 영미나 유럽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작가·작품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금은 열기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한때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던 전통극에 대한 이론서나 자료집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평론집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익숙한 몇몇



서울 교보문고의 연극·영화도서 코너.

평론가들의 평론집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에서의 '연극학' 전공자에 의한 본격적인 평론집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희곡집으로는 차범석씨를 비롯해 이강백, 이근삼, 윤조병, 윤대성, 윤정선, 주인석씨 등의 작품집이 나와 있는데 전문 희곡작가의 절대수가 부족한 만큼 작품집의 양도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외국작가의 희곡집은 비교적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현암사는 아이스쿨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메난드로스 등 고대 그리스희·비극 시리즈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 동문선은 현대영미희곡선을 기획, 현대 연극계를 이끌고 있는 영미의 주요 희곡작품을 망라해 선보이고 있다. 또한 체홉이나 입센, 베케트, 피터 한트케

등 연극무대에 자주 올려지는 작가의 작품들은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본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들 국내의 희곡집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출판사측의 희곡집 기획시리즈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련의 문학작품시리즈물 중의 하나로 간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극관련 전문지는 2종에 불과

연극관계 도서들에 대한 출판사측의 무관심 속에 '무대예술서 전문출판사'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예니. 지금까지 희곡집 뿐만 아니라 각종 시나리오도 출판해오고 있는데 이밖에도 인형극 대본, 연출가의 연출노트 등 다양한 기획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예니에서는 지난 81년 한국문화예술진

“한솔과 손잡으시면 편집자 10명을 얻는 셈입니다!”

- ◆ 제작 대행 : ① 일손이 달리신다구요? 대신 뛰어 드리겠습니다.
- ② 원고가 있으시다구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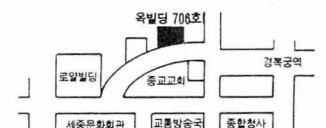
- ◆ CONVERSION (변환) : PC로 입력한 디스켓만 가져오시면 편집상태인 교정 → 인화 → 필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 원고 은행 : 출판 원고접수, 출판원고 지원해 드립니다.



한솔기획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 735-4997 FAX : 739-8791



홍원에서 발행했던 '공연예술총서'를 영인본으로 다시 제작, 현재 일반서점에 보급하고 있다. 기획경영·연출·장치조명·연기·분장·연극사전의 전6권으로 기획된 이 총서는 각 분야별 전문편집위원을 구성해 주로 해당 외국이론을 번역·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무대 공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문예진흥원 자료관(덕수궁)에 소장돼 있는 연극대본들은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공연된 작품의 대본 4990여편이 보관돼 있어 자료적 가치도 크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연극관련 잡지는 「한국연극」과 「희곡문학」 두종이 있다. 「한국연극」은 한국연극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지금까지 통권 176호가 나와 있다. 「희곡문학」은 작년 여름 창간된 계간지로 끈이어 겨울호를 선보일 계획인데 희곡작품 뿐만 아니라 관련 논문과 외국 연극계의 현황 등을 실고 있고 문헌 자료를 발굴하는 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잡지의 주관을 맡고 있는 김홍우 교수(동국대)는 “출판사측에서도 시장성이 없어 제작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제작비가 높은 잡지를 시작한 데에는 많은 위험부담이 따랐고 실제 지금까지 두권을 내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고 밝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잡지의 존재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계속 누적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

하면서까지 출판물 고집하는 출판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현재 연극관련 도서를 찾는 독자들은 굳이 크고 작은 연극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 물론 시연을 전제로 한다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이론’ 혹은 ‘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나 참고도서 정도는 일정 수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극관련 도서의 전반적 침체현상은 단순히 시장성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희곡작가를 비롯해 관련 전공자가 극히 적음으로 해서 생기는 ‘집필력’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유민영 교수는 “연극이론에 관한 세분화된 전문연구서와, 결합기식의 인상비평이 아닌 본격학술평론집이 나와줘야 연극학이 진정한 ‘학문’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일반독자들을 위한 연극입문서나 다양한 희곡작품집이 등장해 이즈음의 소설이나 시와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어야만 시장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도서목록’을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 연극·영화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대학내에서도 유례없는 활기를 띠고 있어 앞으로 이론과 실기 양면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한다.

— 정소연 기자

음악시대 이끌 두 전문誌

전문지 「오페라」 「민족음악」 창간

국내 최초의 순수오페라전문지 「오페라」와 민족음악연구회에서 펴낸 「민족문화」 제1집이 나와 음악에 관심 가진 이들의 눈길을 모은다.

테너가수이자 국립오페라단장인 김진수씨가 발행인인 「오페라」는 “국내 성악계의 내실”과 “건전한 비평풍토”의 마당으로 자리하겠다는 의도로 출발한 계간지.

창간(90년 겨울)특집으로 ‘한국오페라 과거·현재·미래’에 관한 좌담회를 마련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춘희’의 여주인공이었던 성악가 김자경씨를 비롯해 이인영·김진원·김봉임·황병덕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오페라 역사와 현단계의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주세페 베르디를 집중탐구한 ‘작곡가순례’, 키리 테카나와를 첫번째로 다룬 ‘명오페라가수 시리즈’ 코너 등이 마련돼 있고, 연주회평·논단·국내 오페라단 안내 등을 매호 소개하게 된다. 이밖에 ▲한국적 춘희를 위하여(김홍승) ▲오디오 시스템 발달사-유성기의 역사(이영동) ▲시론, 폐허 속에 존재하는 폐허 맥베드(전창섭) 등의 글이 실려 있다.

「민족음악」(공동체) 제1집은 “분단시대의 예술인으로서” “민중적 삶에 충실한 민족음악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모인 진보적 예술운동단체 ‘민족음악연구회’에서 펴냈다.

창간 특집1에서는 음악계 민주화를 지향하는 음악인들의 인식을 ‘민족음악의 논리’라는 주제로 묶어 ▲한국 음악인들의 현실인



식과 수행(노동은) ▲한국민족음악론에서 ‘전통’에 대한 논의(문옥배) ▲민족음악운동의 위헌 제언(김수현) 등의 글을 모았다. 특집2 ‘노래운동’에는 ‘시, 노랫말, 노래’(이건용)라는 글을 통해 현장에서 불려지는 운동가요의 노랫말을 음악적으로 분석하여 이채롭다.

제도권 내의 음악교육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하여’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에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음악가를 대비, 조명한 ‘해방공간을 주도했던 음악가 김순남, 현제명’의 기획기사도 음악현실의 많은 문제를 생각해 해준다. 이밖에 국악계의 새로운 흐름, 6공화국 문화정책, 음반법 개정안 등의 현안문제도 시론에서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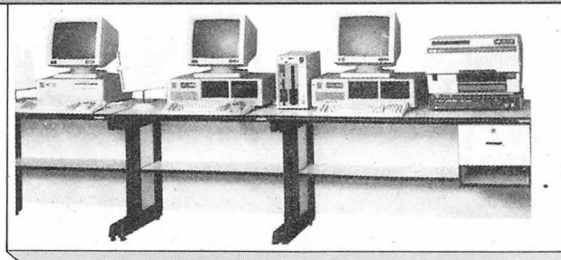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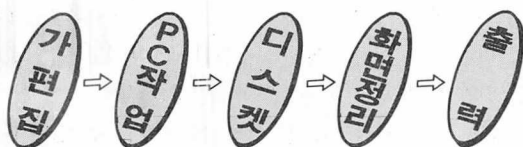
출판희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급수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티브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